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 작품연구논문

내적 표현으로서의 도시이미지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배 은 열

내적 표현으로서의 도시이미지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배 은 열

인 준 서

배은열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이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내용적(内容的) 측면과 조형적(造型的) 측면에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예술, 특히 미술은 작가의 조형언어이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성적인 면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을 통해 감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안의 감성을 분석해 볼 수 있고, 또 내면에 존재하는 감성을 불러일으켜 그 가치를 환기시킬 수 있다.

그것이 구체적 실생활의 총체성과 연관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표현 수단이 되고 '모든 인간'을 위한 감정이입의 매개체가 되는 한에서 즉, 현존의 실생활에서 결과된 체험의 총화를 끌어들이 예술적 표현의 동질적형태안에 포괄시킬 수 있는 그 행위의 미적, 규범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예술작품은 그것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사회의 물리적 상태가 주된 감정을 결정하며 그 시대의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재창조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현대 도시풍경의 공간표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지난 1세기 동안 미술가들은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져왔다. 도시의 근대성에 주목했던 인상주의로부터 입체주의, 미래주의의 도시에 대한 진보적 해석, 도시민의 궁핍한 삶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표현하는 사회학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미술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 왔다.

도시 풍경은 인간과 자연을 경계 짓기도 하고 아우르기도 하는 현대문명의 산물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미 변해버린

또 다른 자연을 응시하며 인공으로 규정지어진 미(美)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쓸쓸함, 외로움 등의 이중적 감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삭막한 현실세계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찾아가는 출발점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도시풍경을 찾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내용적, 조형적 측면에서 분석 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현대 도시의 의미와 조형적 대상으로서의 도시에 대해 분석하고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 한다.

조형적 측면에서는 점의 표현, 흑백 이미지, 공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점은 움직임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형태에서 선을 이루기도 하고 면을 이루기도 한다. 도시 이미지는 점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표현된다. 판의 표면에 도구와 충돌함으로써 형성되는 점을 통해 도시의 구조가 표현된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점들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조형화 했다. 둘째, 도시는 눈으로 보여 지는 색채, 예를 들어 길게 늘어선 자동차의 빛들과 수많은 건물들을 밝히는 간판들의 불빛은 다채로운 색채를 만들어 내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면, 차갑고 인위적이며 정지되어 있는 커다란 단색조의 구조물 덩어리로 보인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흑백이미지로 조형화 하였다. 셋째, 도시는 인위적인 인공의 공간으로, 자연(나무)의 이미지는 시간성을 보여주는 구조로 나누어 조형화 하였다.

방법적 연구에 있어서는 흑백이미지로서의 도시 표현 연구와 도시와 자연의 관계 표현연구에 관해 살펴보았다. 작품을 표현한 방법은 목판화 기법과 Digital print기법(overlap image)을 사용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II. 본 론	5
1. 내용적 측면	5
1) 현대 도시의 의미	5
2) 조형적 대상의로서의 도시	7
3) 도시와 자연의 관계	11
2. 조형적 측면	13
1) 점의 교차 表現	15
2) 흑백이미지	16
3) 공간	17
III. 작품 분석	20
IV. 결론	36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찾아 가다, 60×90cm, woodcut, 2008	20
【작품 2】	무 제 I, 20×60cm, woodcut, 2008	21
【작품 3】	무 제 II, 20×60cm, woodcut, 2008	22
【작품 4】	무 제 III, 20×60cm, woodcut, 2008	23
【작품 5】	어느 곳, 51×33.5cm, woodcut & digitalprint, 2008	25
【작품 6】	도시 풍경, 100×70cm, woodcut & digitalprint, 2007	27
【작품 7】	그 곳 I, 100×70cm, woodcut & digitalprint, 2007	28
【작품 8】	그 곳 II, 100×70cm, woodcut & digitalprint, 2007	29
【작품 9】	그곳을 찾다 I, 60×90cm, woodcut & digitalprint, 2008	32
【작품 10】	그곳을 찾다 II, 100×70cm, woodcut & digitalprint, 2008	34

I. 서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속에 내제된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작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내적 감성을 인공의 도시풍경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였는지 이론적 바탕과 조형적 시각을 통해 고찰하고 분석해 보며 그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인간이 그가 속한 사회, 문화의 환경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예술가는 외부세계의 대상이나 사건을 통해 자신의 환경에 따른 정서, 내적 현실에 의해 감정을 표현 하고자 한다. 이때 감정이란 대상을 통한 정신적 가치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은 그것이 구체적 실생활의 총체성과 연관을 가지면서 스스로의 표현수단이 되고 ‘모든 인간’을 위한 감정이입의 매개체가 된다. 행위의 미적, 규범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예술작품은 그것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사회의 물리적 상태가 주된 감정을 결정하며 그 시대의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일상적으로 접했던 생활공간과 익숙하고 친숙하여 무심코 지나치던 주변 환경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되었다.

본인은 흑백이미지로서의 도시 풍경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처음 도시 이미지에 주목한 것은 색색의 조명들에 의해 화려한 도시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미 변해버린 또 다른 자연을 응시하며 인공으로 규정지어진 미(美)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쓸쓸함, 외로움 등의 이중적 감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나타나는 인위적으로 정제되어 있는 도시 건축물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표현해 보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내적 정서가 도시 풍경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론적 배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본인의 작품 속에 표현된 내적 이미지에 대한 정신적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고 앞으로의 창작 활동 방향에 지침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7년과 2008년 제작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현대의 대표적인 풍경인 도시라는 공간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심상들을 표현해나간다.

본인의 삶의 체험과 기억 그리고 상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경험적 정서를 조형적 표현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정서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도시이미지는,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 맞춰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람, 이미지의 정보 속에서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감과 규칙, 질서가 정해진다. 도시 공간들은 수많은 빌딩들이 일렬로 줄지어 들어차있고 부정형의 도로들이 그것들을 연결한다. 도시의 외형은 거대하고 움직임이 없는 정적이고 단순한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인위적인 공간, 기능적 공간과 정신적인 표상의 공간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연 이미지는 반대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사물화 된 풍경이란 나무가 외적인 시간의 경로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가 된다. 수많은 나무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한 순간의 인상(풍경)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된 시간을 반영한다. 나무에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하나의 풍경(인상)으로 정형화 되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형태적인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각 개별적인 선하나 하나는 자라나는 것, 서로서로 관계를 가지며 중심축을 향해 있으면서도 사방을 향해 생성되는 에너지를 가진 하나의 통합체적인 관계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의 경로와 공간의 경로가 어우러져서 나무라는 하나의 단어적인 사물이지만, 자연이라는 대표 적인 풍경으로 사물화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현대 도시 형성의 시대적 배경과 현대 도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심상적 의미로서의 자연과 도시의 형태, 도시와 자연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통해 살펴보았다.

작업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판화의 여러 방법 중에서 점묘 형식의 목판화 기법과 Digital 이미지(overlap image)를 택하였다.

도시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는 적막의 상태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흑백이미지를 사용했다.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한 이미지를 비트맵으로 전환하여 점의 굵기 정도를 선택하고 이를 드릴을 이용해 점묘로 표현 하였다. 점의 반복은 공간감과 깊이 감을 나타내주고 시간적

인 요소를 가지게 한다.

점은 움직임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형태에서 선을 이루기도 하고 면을 이루기도 한다. 도시 이미지는 점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표현된다.

판의 표면에 도구와 충돌함으로써 형성되는 점을 통해 도시의 구조가 표현된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점들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반대로 자연의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생명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진으로 찍은 나무 이미지를 이용하여 Digital print의 이미지로 공간을 구성 하였다.

마지막은 본인 작품의 개별적인 분석 단계로 도시 이미지와 자연 이미지의 구조적인 측면과 상징성을 어떻게 부각 시키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작업에 대한 조형 언어를 정리해 보고자한다.

II. 본 론

1. 내용적 측면

1) 현대 도시의 의미

현대 도시는 과거의 도시에 비해 양면적 성격이 더 뚜렷한 것 같다. 질서와 무질서, 균형과 불균형, 개방과 폐쇄, 문화와 야만, 코스모스와 카오스 등의 융화할 수 없는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는 야누스적 존재라 볼 수 있다.¹⁾

우리의 도시는 지난 50년에 걸쳐 급진적인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 첨단 기술과 전통 사이에서 어정쩡한 타협을 이룬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아사아권의 모든 도시에 비해 더욱 정도가 심한 편인데 이는 문화적 혼돈과 정체성의 결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오늘날 현대 음악에서는 이를 음악의 새로운 요소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서울도 독특한 부조화 속에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도시민의 정서적 특징 중 하나는 소비문화가 주는 화려함과 과학기술의 찬양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낳은 생산의 기적은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했다. 또 정치, 종교, 이념으로 부터도 자유로워져서 과거 극소수의 특권층에게만 가능했던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다수의 개인들도 누리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전통적인 장애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지 않는 경우

1) 이규목 2002. <한국의 도시 경관> 열화당 p. 97.

란 없다. 모든 것이 손닿는데 있고, 살 수 있고, 소비 할 수 있다. 이 같은 긍정적 측면과는 반대로 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 일상성에 대한 인간소외로 설명할 수 있다.

도시민은 독자적이기 보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더 이상 이런 구도를 벗어나면 불안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소외감, 무력감이라 하고 이를 현대성, 일상성이라 하여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프랑스 1901~1991)는 도시의 첫 번째 특징으로 규정하였다.

일상성은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세밀하게 짜여진 일과표와 같은 것이다. 그 일과표가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그 내용은 구차하고 보잘 것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나 그곳을 떠나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일상의 공간을 의미한다.²⁾

이와 함께 인간이 오랫동안 숙고해서 발전 시켜온 사회, 경제, 정치제도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거대성 때문에 이제 한낱 그 부속품처럼 되고만 인간 자신의 무력감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소외라 할 수 있다.³⁾

현대 사회와 더불어 사회 구조의 변동이 생기면서 인간에게는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산업사회는 분명히 전통사회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능률, 합리화, 업적이 중요하고 과학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내면적 번영과 생활의 윤택함을 꾀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계문명의 압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내면 상실을 가져왔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 1900~1980)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사회 기구나 기계 등에 의해서 거꾸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2) 김준수 1998 「도시이미지의 복합적 요소에 관한 공간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

3) Pappenheim, 1977 <현대인과 소외> 진덕규 역 문학과 사상사. p.5.

2) 조형적 대상으로서의 도시

20세기 초 추상미술을 개척한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예술가의 존재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⁴⁾

창조자로서의 모든 예술가는 자기의 고유성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대의 아들로서의 예술가는 자기 시대의 고유성을 표현해야만 한다.

예술의 봉사자로서의 예술가는 예술일반의 고유성을 표현해야만 한다.

칸딘스키의 말처럼 객관적 대상은 작가에게 동기부여의 과정으로 의미를 갖고 그 해석은 작가의 정신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시대의 가장 지배적인 정신적 대상은 예술가들의 표현 대상이 된다. 중세 시대에는 신(神)을, 인문시대에는 인간이 그 중심이 된 것이다.

회화의 주제는 화가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서적이고도 지적인 관심거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 주고 있다.⁵⁾

인간이 그가 속한 사회, 문화의 환경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예술가는 외부세계의 대상이나 사건을 통해 자신의 환경에 따른 정서, 내적 현실에 의해 감정을 표현 하고자 한다. 이때 감정이란 대상을 통한 정신적 가치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은 조형언어이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성적인 면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을 통해 감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안의 감성을 분석해 볼 수 있고, 또 내면에 존재하는 감성을 불러 일으켜 그 가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예술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4) 칸딘스키 1979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열화당. p.68.

5) M.Groccer. 1987<화가와 그의 눈> 오병남, 신선주 공역 서광사. p. 159.

선택하고 그것에 자기의 의미를 부여한다. 대상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일지라도 다른 감정으로 받아 들여 진다면 그것에서도 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무엇인가 새로운 시각으로 그 대상을 바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적인 도시 이미지도 새로운 상황 속에 놓이면 다른 미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재창조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현대 도시풍경의 공간 속에서 인간과 자연관계의 소통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일상적으로 접했던 생활공간과 익숙하고 친숙하여 무심코 지나치던 주변 환경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미 변해버린 또 다른 자연을 응시하며 인공으로 규정지어진 미(美)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쓸쓸함, 외로움 등의 이중적 감성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1세기 동안 미술가들은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져왔다. 도시의 근대성에 주목했던 인상주의로부터 입체주의, 미래주의의 도시에 대한 진보적 해석, 도시민의 궁핍한 삶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표현하는 사회학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미술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 왔다.

도시 풍경은 인간과 자연을 경계 짓기도 하고 아우르기도 하는 현대문명의 산물이다.

현대 도시는 시각적으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 맞춰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람, 이미지의 정보 속에서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감과 규칙, 질서가 정해진다. 도시 공간들은 수많은 빌딩들이 일렬로 줄지어 들어차있고 부정형의 도로들이 그것들을 연결한다. 도시의 외형은 거대하고 움직임이 없는 정적이고 단순

한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도시는 인위적인 환경을 반영하고 의도된 환경, 문화적 환경이다.

도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빌딩과 아스팔트와 자동차만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옷차림과 행동거지 전체를 규정하는 집단적인 삶의 틀이기도 하다.⁶⁾

도시 속의 선(線)적 형태는 기하학적 직선과 곡선이 주류를 이룬다. 이로써 간결하고 논리적이며 경직되어 있는 이성적 모습을 보여 준다. 색 또한 화려한 색과 단조롭고 무표정한 색이 공존하고 있다.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요소는 완충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만난 듯 하여 일종의 긴장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도시는 인간이 이루어 놓은 구조물이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하나의 실체라고 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흔히 접하는 환경이기도 하다.

도시의 기능 면에서 인간 활동의 장이며, 형태면에서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구조물의 집단이다. 따라서 도시는 인공적 공간이다. 도시 경관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인공적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도시는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장소이며,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인위적 환경이다.

인간은 생존에 관한 본능적인 욕구이외에도 미를 느끼고 나타내고자 하는 제3의 본능이라고 할 표현욕이 있어 아름다움을 보고 접하게 되면, 즐거움과 안정된 기쁨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미의 경험은 막연하게 보다는 구체적인 것이어서, 우리들 실생활 공간 즉, 환경을 구성하는 갖가지 요소들이 그 가능성을 가진 대상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 마다 이러한 모든 대상들로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 각자의 의

6) 최민, 성완경 1982 <시각과 언어 I> 열화당. p.132.

지대로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 하고자 하는데, 특히 예술가는 이러한 일에 더욱 적극적이어서 그의 감각에 축적된 인상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기를 갈망한다.

다시 말하면 공간속에 있는 여러 대상들을 묘사함으로써 각기 제 나름대로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고 예술적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도시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 작품 구성을 하고자 한다.

주제를 도시 이미지로 삼은 것은 인간은 집단을 형성하고 여러 구성물을 가지고 변화 하는 도시의 형태를 이루게 되므로, 현대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일차적인 접근 방법이 도시를 이루는 여러 조형물의 형태 및 그 이미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본인과 비슷한 소재로 작업을 해온 화가들을 미술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출신 작가로 에드워드 호퍼(E.Hopper 1888-1967)와 이탈리아 출신 작가로 미래주의의 한 구성원이었던 움베르토 보치오니(U.Boccioni 1882-1916)를 들 수 있겠다.

이 두 작가는 20세기 초를 전 후 해서 도시 공간이라는 서로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각자 작업을 했다. 하지만 이 두 작가의 그림의 주제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도시를 사랑하고 기계를 찬미하는 화가로서 보치오니는 20세기 초 미래주의의 주자였다.

반면, 호퍼가 관찰한 도시 공간은 또 다른 것이었다. 그는 도시 공간에 배여 있는 도시의 어둡고 외로운 심상을 표현 하고자 하였으며 그의 주제는 ‘인간 소외’였다.

보치오니의 경우 같은 소재를 놓고 도시의 역동성에 주목했던 반면, 호퍼는 도시의 황폐함에 초점을 두었다.

본인이 표현하고자 했던 도시 공간의 개념은 광활함과 침묵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호퍼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호퍼의 도시에 숨어 있는 부정적인 요소, 소외와 공허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적막감을 표현한데 반해, 본인은 자신이 바라 볼 수 있는 내면적인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인이 선택하고 표현하고자 하며 새롭게 보고자 한 것은 본인의 정서가 담긴 공간이다. 그것은 다른 장소의 공간과는 다른 느낌이 배어있는 공간이며 또한 내면의 눈으로 바라본 공간의 정서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는 공간은 도시 공간으로서 무심코 발견할 수 있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며, 광범위한 대상으로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명상적인 도시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3) 도시와 자연의 관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던 시대는 산업화로 인해 급변하게 되었다.

도시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게 되면서 인공적인 것들과 자연과의 균형은 깨어지게 되었고, 자연과의 상생이 아닌 일방적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는 현대적 의미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공간 속에 있는 건물들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이런 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생명감 없는 것이라 느껴진다.

화면에 보여지는 도시의 이미지와 자연의 이미지를 오버랩(overlap image) 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공허함, 현실세계의 고독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인간이 자연으로의 복귀와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찾으려는 갈망을

내포하고 있다.

도시의 생활 속에서 인간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의 상실에 따른 공허함과 존재감을 잃고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얻고자 한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인간 역시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도시속의 풍경은 정체되어 있는 인위적인 건물과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경이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들과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 속에서도 자연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나무는 시간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무와 건물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루게 된다. 직선적이고 무미건조한 건물들에 나무의 유기적 선들이 결합됨으로써 두 개체는 형태적 조화를 이루게 된다.

사물화 된 풍경이란 나무가 외적인 시간의 경로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가 되고, 이것은 하나의 존재하는 현재로서 은유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많은 나무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한 순간의 인상(풍경)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된 시간을 반영한다. 나무에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하나의 풍경(인상)으로 정형화 되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형태적인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각 개별적인 선하나 하나는 정형화할 수 없는 에너지의 발현을 은유하고 있다. 자라나는 것, 즉 진행의 과정은 그 자체가 불안정한 구조인 듯하지만, 가지 하나하나가 서로서로 관계를 가지며 중심축을 향해 있으면서도 사방을 향해 생성되는 에너지를 가진 하나의 통합체적인 관계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의 경로와 공간의 경로가 어우러져서 나무라는 하나의 단어적인 사물이지만, 자연이라는 대표적인 풍경으로 사물

화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풍경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을 인간주변의 하나의 거대한 자연이라고 했을 때 사물로서의 나무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나무라는 자연물과 인간이 만들어낸 도시 사이의 관계를 통해 느낀 감정을 주관적인 재현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일상에 대한 복합적 심상을 표현하고자 도시의 부분이미지로 사실적 표현과 흑백톤 으로 표현하여 도시적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 풍경과 자연을 사실적 공간과 명상적 공간의 이중 구조로 제시하여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자 했다.

2. 조형적 측면

1) 점의 교차 表現

작가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 하고자 할 때, 표현의 언어로 조형 요소를 사용하게 된다. 이때 조형요소들이 작가의 구성에 따라 결합, 조절, 변용되는데 작가의 내면적 의도는 이 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표현 과정에서 조형 요소들은 객관적인 언어적 성격을 가지며 이들의 성격과 특징을 잘 알고 사용하면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본인이 채택한 조형요소는 점(點) 이다.

획일화된 도시 이미지와 본인의 정체성을 표현 하고자 반복적 행위로서 점을 찍어 화면을 형성 하였다.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게 되면 점은 모든 것의 집합체이다. 점의 성격적 특성과 표현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essence)이며 개념상 비물질적인 본질이라 정의 되어야겠다. 점은 원천적인 조형요소이며,⁷⁾ 하나의 언어이지만 침묵의 언어라 할 수 있으며 내면적으로 억제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장 간결한 형태이고 중심 집중적이다.⁸⁾

현대 도시는 시각적으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빠르게 돌아가는 현실에 맞춰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람, 이미지의 정보 속에서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감과 규칙, 질서가 정해진다.

점은 하나의 조그만 세계다. - 이것은 어느 정도 사방으로부터 동일하게 떨어져 있으며 주변으로부터 거의 빠져나와 있다.⁹⁾ 작은 점에서 큰 점으로 이어질 때 형(形)으로 인지된다. 점은 반복, 중첩을 통해 커다란 형태이기도 하며, 연결된 점은 하나의 패턴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기도 한다. 점은 면으로 변할 수도 눈에 띄지 않게 전체 평면으로 덮을 수도 있다.

앞에서 보듯이 점은 정지, 함축성, 상징성, 침묵 등의 성격을 지닌다. 이런 성격들은 표현 언어로써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사실적 형태로 나타날 때 무한히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점은 시각적으로 가장 간결한 형태이다.¹⁰⁾

또한 점이란 조형 요소는 눈을 집중시키게 한다. 반복적으로 가득한 화면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눈은 율동적인 시각 패턴들의 묘한 엇갈림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떤 자극을 정화해 일관된 전체 이미지로 통합하려 한다. 시각적 통합의 연결 상태는 당혹, 혼란, 탈진, 흥분 상태 등 여러 느낌을

7) W. Kandinsky 1983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p. 24.

8) W. Kandinsky 1983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p. 21.

9) W. Kandinsky 1983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p. 26.

10) W. Kandinsky 1983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p. 28.

야기하며 연속, 순환을 형서,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¹¹⁾

점은 움직임에 따라 최소한의 기본 형태에서 선을 이루기도 하고 면을 이루기도 한다.

판의 표면에 도구와 충돌함으로써 형성되는 점을 통해 도시의 구조가 표현된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점들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상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나무판 위에 만들어진 점들은 기계적인 도구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생성 된다. 이는 비트맵으로 전환된 도시의 이미지가 판으로 옮겨지면서 다시 한번 기계의 압력에 의해 변형되기도 한다.

이런 점의 교차 반복은 공간감과 깊이 감을 나타내주고 시간적인 요소를 가지게 한다.

조형요소들은 그들 각기 고유한 성격을 지니며, 예술가의 작업에 의해 공간 안에서 특정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점은 그 본질적 개념을 말할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성격과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며 본인 또한 나름대로의 표현 언어를 연구하던 중 원칙적인 요소로서 가장 단순한 형식요소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양한 성질과 주장이 들어 있는 ‘점’에 매력을 느끼고 그 표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초기에 찍는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유희로써 반복행위의 의미를 가진다.

반복의 요소로서 시각적 통일성을 주기 위해 사용- 반복의 의미는 조그마한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는데 있다. 그러면서도 반복은 조각을 만든 다기보다 리듬을 만들어 낸다.¹²⁾

11) 김춘일, 김남희 공역 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p.90.

12) David A. Lauer. 1985 <조형의 원리> 이대일 역 미진사. p.14.

또한 무수히 많은 점들은 현대 도시의 많은 상황이 교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흑백이미지

칸딘스키가 말하는 색이란 세 가지 현상의 기능이 있다.

물리-화학적 측면(색의 본질=빛), 생리적인 측면(시각적으로 색을 지각하는 방식=눈), 심리적인 측면(색이 인간의 내부에 불러일으키는 효과=지적인 식과 감정적 반응)이 있다고 했다.¹³⁾

본인이 바라본 도시 이미지는 인공으로 규정지어진 미(美)이며 직선으로 요약된다고 본다.

눈으로 보여 지는 색채, 예를 들어 길게 늘어선 자동차의 빛들과 수많은 건물들을 밝히는 간판들의 불빛은 다채로운 색채를 만들어 내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면, 차갑고 인위적이며 정지되어 있는 커다란 단색조의 구조물 덩어리이다.

이런 도시 풍경의 객관적 대상을 통해 조형 요소의 근본인 ‘점’과 ‘흑백’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일상적 형태가 갖고 있는 구체적 내용들, 예를 들면 기능적인 복잡한 내용은 생략하고 조형적 요소로만 표현 하고자 했다.

본인과 비슷한 소재인 도시를 가지고 작업을 하였지만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화가 보치오니(Boccioni 1882-1916)를 들 수 있다.

13)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열화당. p.45.

보치오니는 도시를 사랑하고 기계를 찬미하는 화가로서 20세기 초 미래주의의 주자였다. 미래주의자들에게 속도라는 새로운 이상으로 등장하였는데 그것을 움직임으로 해석 하였다.¹⁴⁾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일어서는 도시> (참고도판1)를 예로 들면, 짧은 선묘를 이용하여 율동적인 터치와 화려한 색채로 운동감과 속도감을 표현하였다. 일어서는 도시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장소로서 묘사하고 있으며 현대 도시의 역동성을 예찬 했다. 또한 조각에서도(참고도판2) 인간의 움직임을 비바람 속에 옷자락을 펼럭이면서 걸어가는 운동의 연속적인 표현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운동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운동으로 연결된 볼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움직이는 인체의 분해는 속도를 느끼게 해주며 또한 과감하게 변형된 인체는 초현실적인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

3) 공간

공간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으며, 예술가들에 의한 새로운 공간의 탐구는 미술사에 있어서 불변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은 서로 다른 공간의 지각과 표상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회화에 있어서 공간 구성은 작품표현 조건 중에 중요한 요소이며 화면의 구도라고 말할 수 있다.구도는 그림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조형 방법으로 화면의 질서를 말한다.

14) 로버트 린트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역 예경. p.96.

화면에 그려진 하나의 선은 평면 안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또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공간은 그 선 아래로 차단 없는 흐름을 계속한다. 이렇게 화면의 선이 분리되어 보이는 것은 시지각의 경제성, 계속성의 원리에 따라 지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표면 패턴이 단순 구조를 가질 때 2차원적이기 보다는 좀더 3차원적으로 보이게 되는 원리이다.¹⁵⁾

본인의 공간은 도시와 자연(나무)이미지로 분할(分割) 되어졌다.

도시 공간은 현실적인 공간으로 소외되고 시간과 단절된 공간으로 선택하였다.

반대로 자연(나무)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선택하였다.

전체적인 화면의 구조는 관조적이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현실의 재현-도시의 모습이 배경에 깔려 있다.

도시 이미지는 점묘로 표현 하였다.

평면위에서 점의 반복은 내적인 동요를 상승 시키는 강렬한 수단이며, 시각의사 전달의 단위가 된다.

도시의 군중 속 개인의 모습은 분명히 타인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규칙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런 형태의 개인이 모인 전체의 모습은 일정한 규칙성과 견고한 구조로 형성되어졌다고 본다. 이런 군중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 구도로 조형화 하였다. <작품 1,2,3,4>

또한 도시의 건물들, 자동차 행렬은 움직임이 없는 부동의 공간으로 조형화 하였다.<작품 5,6,7,8,9,10>

자연(나무)이미지는 사진집 등에서 차용하기도 하고 직접 촬영을 통하여

15)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 1995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p.221.

복사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비트맵으로 전환- 점의 굵기 정도 선택)

사진 이미지는 하나의 사물이 사물 그대로 있을 때는 순수한 하나의 사물 이지만 어떤 매체를 통해 표현 되었을 때는 그것은 이미 사물 자체는 아니다. 하나의 사물이 ‘존재의 차원’에서 ‘의미의 차원’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으로 찍힌 사물은 이미 사물이 아닌 사물의 이미지, 의미이다.¹⁶⁾

복사 매체를 통한 이미지는 즉각적인 감정이 배제된 객관적 이미지가 된다.

16)한정식 1990 <사진예술개론> 열화당. p.175.

Ⅲ.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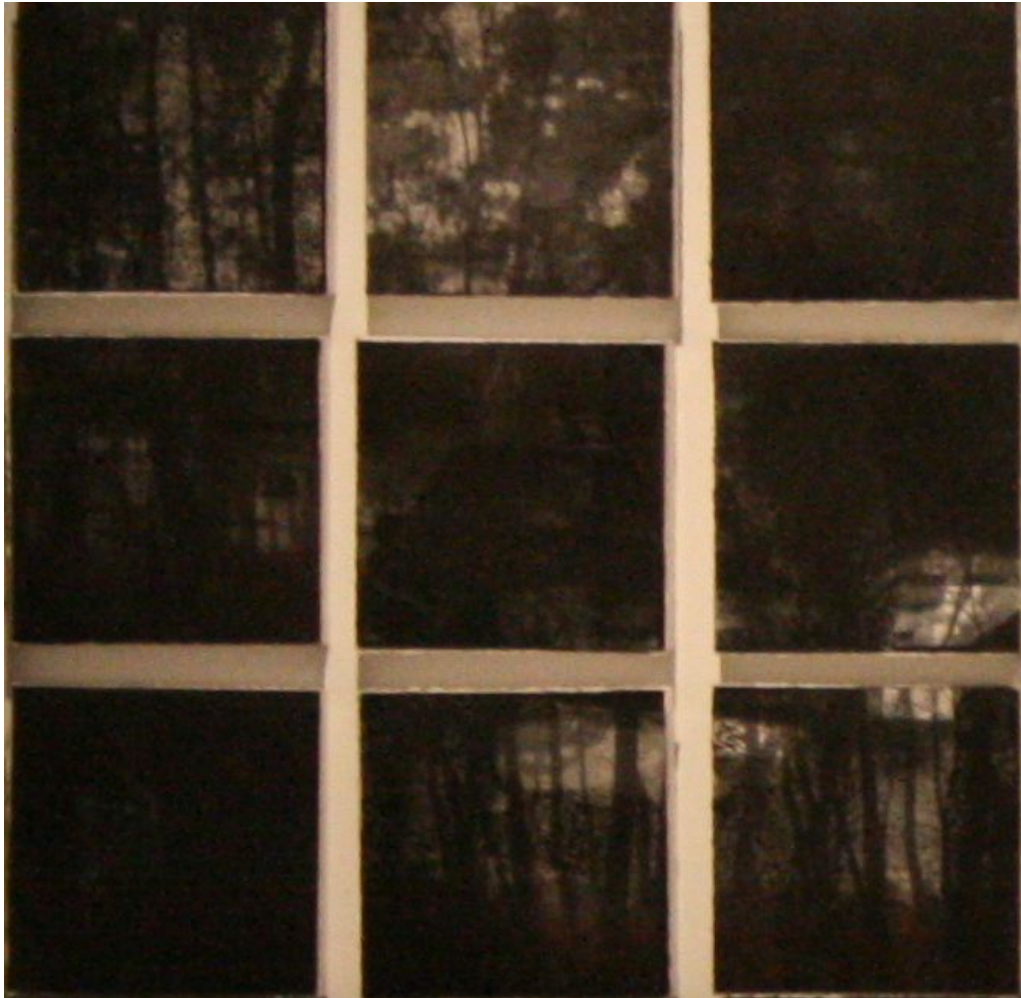
【작품 1】 찾아 가다, 60×90cm, woodcut, 2008



【작품 2】 무제 I, 20×60cm, woodcut, 2008



【작품 3】 무 제 II, 20×60cm, woodcut, 2008



【작품 4】 무 제 III, 20×60cm, woodcut, 2008

<작품 1>, <작품 2>, <작품 3>,<작품 4>

수많은 사람들이 거니는 일상은 그야말로 빠른 기계걸음의 연속이다.

이런 거대한 도시에서 개인은 무기력함과 동시에 고독과 소외를 끊임없이 느끼게 된다.

군중 속 개인의 모습은 분명히 타인과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규칙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런 형태의 개인이 모인 전체의 모습은 일정한 규칙성과 견고한 구조로 형성되어졌다고 본다.

또한 거대한 도시에서 개인은 무기력함과 동시에 고독과 소외를 끊임없이 느끼게 된다.

<작품 1>을 포함한 두 개의 작품은 흑백의 점묘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사진을 찍어 이를 흑백의 맵점(bitmap)으로 바꿔 확대 복사한 후 목판에 니들이나 드릴을 이용해 점으로 뚫어서 완성한다.

<작품 1>군중들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재 각각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한 덩어리의 무리로 보인다.

이런 느낌을 멀리서 바라보는 형태로 관조적인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2>는 매일 오가는 지하철역 내부의 사람들 모습이고, <작품3>은 건널목을 바빠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작품 2>와 <작품 3> 역시 무리지어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 덩어리로 보여 지고 표정이 보이지 않는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 하고자 했다.

<작품 1>, <작품 2>, <작품 3>은 구도가 단조롭고 흑백의 이미지만 부각되어 평<작품 4> 는 나무 이미지가 너무 강하여 자동차의 이미지지 않았다.



【작품 5】 어느 곳, 51×33.5cm, woodcut & digitalprint, 2008

<작품 5> 는 밤의 도시 풍경을 표현하였다.

날이 저물어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된다. 하지만 자칫 너무나 바쁜 일상에 시달려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에도 자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다. 도시의 밤거리는 아름답지만 공허한 인공조명들만이 비춰진다. 그런 현대인들에게 밤 풍경은 익숙한 거리의 어둠으로 다가가 각자의 감성을 돌아볼 수 있는 풍경을 그리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우연히 집으로 가는 길에서 본 풍경에 동화되어 밤의 쓸쓸하고 고독한 풍경에 본인의 내면을 투영시켜 그려보고자 하였다. 본인이 느낀 고독감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내면 정서라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정서를 풍경을 통해 드러내보이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색조의 표현은 가라 앉은 듯 한 느낌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밤의 불빛들을 사진으로 찍어 Digital print로 출력하여 배경으로 넣었고, 그 위에 목판에 점묘로 표현한 판을 대고 블랙잉크로 찍었다.

이 작품에서 아쉬운 점은 도시의 이미지가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은 점과 배경의 색이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다.



【작품 6】 도시 풍경, 100×70cm, woodcut & digitalprint, 2007



【작품 7】 그 곳 I, 100×70cm, woodcut & digitalprint, 2007



【작품 8】 그 곳Ⅱ, 100×70cm, woodcut & digitalprint, 2007

<작품6>, <작품7>, <작품8> 은 연작으로 그린 그림이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인간 역시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도시속의 풍경은 정체되어 있는 인위적인 건물과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경이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들과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 속에서도 자연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나무는 시간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무와 건물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루게 된다. 직선적이고 무미건조한 건물들에 나무의 유기적 선들이 결합됨으로써 두 개체는 형태적 조화를 이루게 된다. 수많은 나무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한 순간의 인상(풍경)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된 시간을 반영한다.

그 속에서 도시와 자연이 서로 융합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도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목판위에 점묘 형식으로 표현하고 유기적인 이미지로서 나무 이미지를 digitalprint로 출력 하였다.

화면에 보여 지는 도시의 이미지와 자연의 이미지를 오버랩(overlap image) 시킴으로써 현대 사회의 공허함, 현실세계의 고독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인간이 자연으로의 복귀와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찾으려는 갈망을 내포하고 있다.

<작품 6>은 도로의 이미지 위에 나무이미지가 퍼지는 듯한 느낌은 주기 위해 겹쳐 찍었다.

<작품 7>은 화면을 상, 하로 분할하여 표현하였다. 나무의 이미지 톤을 조

절하여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그 위에 도시의 직선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8>은 화면을 좌, 우로 분할하여 배치하였다.

나무 이미지와 그림자를 전체적인 배경으로 삼고 그 옆에 도로의 자동차들을 점묘로 표현 하였다.

위 작품들은 점묘 형식의 작업을 택하고 초기의 작업들로서 화면 분할이나 경계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나무의 이미지들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처리 된 듯하다.



【작품 9】 그곳을 찾다 I, 60×90cm, woodcut & digitalprint, 2008

<작품9>는 <작품 6,7,8>과 유사하게 유기적인 나무 이미지 위에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 하였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인간 역시 시간에 따라 움직인다. 도시속의 풍경은 정체되어 있는 인위적인 건물과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경이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들과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 속에서도 자연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나무는 시간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무와 건물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루게 된다. 직선적이고 무미건조한 건물들에 나무의 유기적 선들이 결합됨으로써 두 개체는 형태적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작품의 구도는 상, 하로 분할하였다.

전체적인 배경 이미지로 나무와 나무 그림자를 digitalprint로 출력 하고, 화면의 1/3정도에 목판을 잘라 도시이미지를 점묘로 표현 하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는 도시의 일부 구조물 아래 나무의 그림자로 인해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게 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9>는 도시 이미지의 배치나 나무 이미지의 처리가 앞의 다른 작품들 보다 자연스럽게 처리 되었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의 전달이 잘 되었다고 생각 된다.



【작품 10】 그곳을 찾다Ⅱ, 100×70cm, woodcut & digitalprint, 2008

<작품 10>은 <작품 5>와 같이 밤의 도시 이미지를 표현 하고자 하였다.

회화는 한 시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회화 속에는 그것을 그린 사람의 눈을 통해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현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본인은 도시의 풍경을 통해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도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면 색색의 조명으로 인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공허한 인공조명들만이 보인다. 그런 풍경을 보면 다른 이들에게는 저 풍경이 어떤 의미를 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보고나서 기억나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조명들은 생명력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로 인해 밤 풍경은 그리 유쾌해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잠든 도시의 밤 풍경은 고요하고 적막하다.

<작품 5> 같이 색조의 표현은 가라 앉은 듯 한 느낌으로 표현 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밤의 불빛들을 사진으로 찍어 Digital print로 출력하여 배경으로 넣었고, 그 위에 목판에 점묘로 표현한 판을 대고 블랙잉크로 찍었다.

이작품 역시 구도 면에서나 색감 면에서 <작품 5> 보다는 자연스럽게 처리 되었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의 전달이 잘 되었다고 생각 된다.

IV. 결론

현대 회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의 재현이나 형이상학적 표현이 아닌 실존하는 화가 자신의 정신세계라 할 수 있으며, 이 내면의 세계는 화가가 갖는 주관적인 시각을 통해 개성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화가의 내면 형성은 화가 자신이 속해있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상호관계로 이루어지고 화가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그림과 연결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아 그 대상에 적합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창조하여 심상적인 표현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형화된 작품은 단순히 작가 자신의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수용자들에게 소통과 전달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본인의 작품이 어떻게 객관화 되어 조형언어로서 가능성을 지니는지, 조형 형식으로서 생명성을 지닐 수 있는지, 얼마나 보편적으로 전달 가능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의 작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현대 도시와 자연(나무)이라는 소재를 채택하여 작품을 구성 하였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반추하여 그 동기, 목적, 조형적 성과를 객관화함으로서 작품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현대 도시는 시각적으로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에 맞춰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람, 이미지의 정보 속에서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감과 규칙, 질서가 정해진다.

선택한 소재를 이미지화 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이미지는 사진촬영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다시 흑백 이미지로 전환 하고 이를 bitmap으로 바꿔 점으로 찍어나간다.

점을 찍는 도구로는 전동 드릴과 니들을 이용하였다.

도시 이미지는 점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표현된다.

판의 표면에 도구와 충돌함으로써 형성되는 점을 통해 도시의 구조가 표현된다.

점이란 조형요소는 눈을 집중시키게 한다. 반복적으로 가득한 화면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눈은 율동적인 시각패턴들의 묘한 엇갈림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어떤 자극을 정화해 일관된 전체 이미지로 통합하려 한다. 시각적 통합의 연결 상태는 당혹, 혼란, 탈진, 흥분 상태 등 여러 느낌을 야기하기도 한다.

도시 공간 속에 있는 건물들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 이런 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생명감 없는 것이라 느껴진다.

화면에 보여 지는 도시의 이미지와 자연의 이미지를 오버랩(overlap image) 시킴으로써 현대 사회의 공허함, 현실세계의 고독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인간이 자연으로의 복귀와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찾으려는 갈망을 내포하고 있다. 나무라는 자연물과 인간이 만들어낸 도시 사이의 관계를 통해 느낀 감정을 주관적인 재현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나무 이미지는 컴퓨터를 통하여 시간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림자와 이미지의 톤을 조정하였다.

또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도시의 무겁고 가라앉는 듯 한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화려한 색상을 제거하고 흑백의 단색조의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화면을 나누어 점묘와

digitalprint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점의 표현에 있어 밀도나 굵기의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도구가 이용되지 못하였다. 또 단색조의 화면 구성에 있어 흑백의 명암 표현이 부족한 점으로 인해 화면이 평면적으로 보여 지고, 구도나 나무 이미지 채택, 소재의 다양성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으로 인해 짜임새 있는 구성이 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까지의 작업 과정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소재와 표현방법에서의 다양성의 부족과, 소재와 의미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의 반성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더 실험하고 수정, 보완 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참고 도판



<일어서는 도시>보치오니(Boccioni) 캔버스에 유채 100×107 1910.



<공간에 연속된 하나의 현상> 보치오니(Boccioni)청동 89×41×1112 1913.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춘일, 김남희 공역 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 David A. Lauer.1985. <조형의 원리> 이대일 역 미진사.
- 로버트 린트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역 예경.
- M.Groccer. 1987. <화가와 그의 눈> 오병남, 신선주 공역 서광사.
- 이규목 2002. <한국의 도시 경관> 열화당.
- Pappenheim, 1977. <현대인과 소외> 진덕규 역 문학과 사상사.
- 최민, 성완경 1982. <시각과 언어 I> 열화당.
- W. Kandinsky 1979.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열화당.
- W. Kandinsky 1983.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 한정식 1990. <사진예술개론> 열화당.

석사 학위 논문

- 김준수, 「도시 이미지의 복합적 요소에 관한 공간성 연구」, 석사 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8.
- 박선영, 「나무와 건물을 소재로 한 도자 조형 연구」, 석사 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8.
- 배호연, 「심상적 도시 풍경에 관한 표현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2000.
- 이소라, 「점묘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2004.

ABSTRACT

City Image as Inner Expression

- Centering around My Work -

Bai, Eun-Yeol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thesis to apply for master's degree. Then, I analyzed and studied my works manufactured from 2007 to 2008 from the side of contents and the side of modeling. I think that art, especially, fine art is plastic language of artist and it is implying sensitive side to be difficult to express with words. One may try to analyze sensitivity in oneself by revealing sensitivity through drawing and may arouse the value by arousing sensitivity to exist in inside.

As far as it becomes own expression means and media of empathy for all the human beings as it is connected with whole nature of concrete real life, it forms aesthetic and normative base of the behavior to be able to include in the homogeneous form of artistic expression by drawing the integration of experience resulted from existing real life. So, in art work,

environmental factor surrounding it and physical state of society decide main feeling, and it is the expression of feeling of the period.

As for subject that I try to express in issue to recreate with own plastic language, I tried to express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human being and nature as work in space expression of modern city landscape.

For the past 1 century, artists have had interest in the form that city changes. City has been the important motive of fine art from impressionism which noticed modernity of city to progressive interpretation of cubism and futurism for city, and sociological viewpoint to express needy life of city dwellers or city which became ruins due to war.

City landscape is the product of modern civilization which defines boundaries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and unite them. I came to realize double sensitivity such as solitude and loneliness to feel in beauty prescribed artificially, staring at already changed another nature in gorgeous city that human beings live every day. In addition, I tried to find city landscape to be able to look out on the rela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newly as starting point to visit utopian world which is in deep mind in desolate actuality world.

In this thesis, I analyzed this course from the side of contents and the side of modeling.

From the side of contents, I analyze meaning of modern city and city as plastic subject and discuss the relation between city and nature.

From the side of plastic side, I discussed by classifying dot expression, black and white image, and composition greatly.

First, dot forms line and surface in minimum basic form in accordance with movement. City image is expressed through continuous movement that dot makes, moving. Through dot to be formed by colliding with tool on the surface of board, structure of city is expressed. By thinking that dots of diverse size and forms are suitable for making regular and repetitious daily city space, I made this into modeling. Second, city makes color to be seen with eyes, for example, lights of automobiles which stand in a row long and light of signboards to brighten numerous buildings make diverse colors.

But, if we see it with constant distance, it seems to be great structure mass of monochrome which is cold and artificial and stops. For expressing this, I made into molding with black and white image. Third, I made into molding by classifying city as artificial space and nature(wood) image as structure to show time nature.

In methodological study, I examined expression study of city as black and white image and expression study of relation between city and nature. As for method to express works, I used pointillisme and digital print technique(overlap image).

